

【논문】

## 이효석 문학에 나타난 관북의 심상지리와 문명비평적 시각\*

정실비\*\*

### 차례

- I. 제국의 영토로서의 북선과 근대문명의 산문성
- II. 국경도시로서의 북선과 개방의 환상
- III. 농촌으로서의 관북과 능금꽃의 의식
- IV. 피서지로서의 관북과 구라파주의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이효석의 문명비평적 시각과 관북이라는 지역이 조우했을 때, 관북의 심상지리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그동안 이효석 연구사에서 관북이라는 지역은 이효석 문학의 소재적·주제적 전환점으로 간주되어 왔다. 1932년 무렵 이효석이 관북으로 이주한 뒤 창작한 작품들은 이효석을 '자연과 성의 세계로 도피한 작가'로 평가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효석이 현실 도피를 위해 관북을 공간적 배경으로 일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으며, 제국의 영토로서 개발되어가는 북선을 응시하면서 그것과 엇갈리는 낭만적인 심상지리를 구축해나갔음을 증명하고자 했다.

이효석은 '타락한 근대 문명과 억압된 인간의 대립'이라는 인식론적 구도와 '산문적 현실과 시적 낭만의 혼합'이라는 창작방법론에 의거하여 관북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창작했다. 식민지 시기 관북은 일본과 만주를

\* 이 글은 2024년 9월 6일 평창 봉평면 다솜관에서 개최된 제1회 이효석 문학포럼에서 발표한 원고를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 도쿄대 박사과정 수료.

효율적으로 이어주는 북선루트로서 주목받은 지역이었지만 이효석의 소설에서는 러시아, 아일랜드, 하얼빈, 구라파와 비약적으로 연결가능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효석은 관북을 '식민지의 지방'으로 수렴시키지 않고 세계와 연결시키며, 관북사람들의 고통과 소망을 특수한 것으로 수렴시키지 않고 '인류 공통'의 것으로 확장한다. 이를 통해 관북은 식민지/제국, 지방/중앙의 정치적 위계질서에 종속되지 않고 대안적 공간과 구획 없이 연결된다. 이효석은 실제 관북의 지리와 특성을 면밀히 관찰하되, 대안적 공간으로 비약하는 낭만적 서사를 창작함으로써 현실과 낭만이 혼합된 독특한 심상지리를 구축했다. 이효석은 근대의 산문적 영토 위에 시적 낭만의 지도를 엮갈리게 겹쳐놓았다.

주제어 관북, 심상지리, 북선, 만주, 하얼빈, 구라파, 문명비평

## I. 제국의 영토로서의 북선과 근대문명의 산문성

이효석의 삶의 이력을 지역의 이동을 기준삼아 요약하자면 이러하다. 이효석은 1907년에 평창에서 태어나 1910년부터는 서울에 거주하다가 1912년에 다시 평창으로 돌아온다. 1920년에 평창보통공립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으며, 1925년에 경성제대에 입학한다. 1927년에 「도시와 유령」으로 경성에서 문단생활을 시작했고 1930년에 경성제대를 졸업한다. 1931년에는 함경북도 경성(鏡城) 출신 이경원과 결혼했으며, 1932년에는 부인의 고향인 함북 경성으로 이주하여 경성농업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한다. 1936년, 이효석은 평양 송실전문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평양시 창전리 48번지 푸른집으로 이사한다. 1942년 5월, 이효석은 평양의 자택에서 결핵성 뇌막염으로 세상을 떠난다. 이러한 기록에 따르면 이효석이 함북 경성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1932년부터 1936년 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효석의 소설과 수필에서 경성, 나남, 독진, 주을 등 관북 지역<sup>1)</sup>은 1932년 이전부터 1936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sup>2)</sup>

주지하다시피 이효석의 소설에는 관북 지역 이외에도 여러 지역이 형상화되어

있다. 이효석의 삶의 이력은 그의 문학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그의 소설과 수필에는 그가 거주했던 영서지방, 경성, 관북지역, 관서지역이 고루 등장한다. 또한 그가 두 차례 여행했던 만주 하얼빈과 그가 실제로 가보지 않았던 러시아와 구라파도 이효석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역이다. 그동안 이효석 문학에 나타난 지역에 대한 연구는 경성,<sup>3)</sup> 영서,<sup>4)</sup> 관북,<sup>5)</sup> 러시아,<sup>6)</sup> 하얼빈<sup>7)</sup> 등을 중심으로 다각도에서 심층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이들 지역을 한데 묶어 여행,<sup>8)</sup> 고향,<sup>9)</sup> 공간,<sup>10)</sup> 지리<sup>11)</sup> 등의 키워드로 이효석 문학 전체를 조망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효석이 각 지역을 어떤 시각에서 어떤 방법으로 재현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효석 소설의 지역 표상 방식에 대한 연구는 자연으로의 도피,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의 반영, 서양송배, 근대성 지향, 파시즘 체제에의 수렴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조명되기도 했다.<sup>12)</sup>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효석의 지역 표상 방식을 제국주의 체제

- 
- 1) '관북'은 철령관(鐵嶺關)의 북쪽 지역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함경북도와 함경남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 2) 관북 관련 작품 목록은 [부록]에 표로 정리해두었다.
  - 3) 김성연, 2008, 「'꿈의 도시' 경성, 그 이면의 '폐허'-이효석 「도시와 유령」을 시점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7.
  - 4) 이현주, 2020, 「고향의 발견, 호명된 영서-「봄·봄」, 「동백꽃」과 「모밀꽃 필 무렵」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72; 이미림, 2015, 「이효석의 영서 삼부작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47.
  - 5) 이현주, 2009, 「이효석 문학의 배경에 대한 주석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 이현주, 2014, 「1920년대 후반 식민지 문학에 나타난 '북국(北國)' 표상 연구」, 『우리文學研究』 44; 이미림, 2016, 「이효석의 북국 삼부작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0; 김현정·김문주, 2016, 「일제강점기 만주행 作家들의 내면과 心象地理-백석과 이효석의 러시아에 대한 동경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8.
  - 7) 신정은, 2024, 「문학지리학적으로 보는 이효석의 도시소설연구-「벽공무한」, 「하얼빈」, 「은은한 빛」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6-2.
  - 8) 백지혜, 2002,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여행'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이양숙, 2008, 「이효석 문학에 나타난 '자연'과 '고향'의 의미」, 『민족문화사연구』 37; 정실비, 2012, 「일제 말기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고향 표상의 변천」, 『한국근대문학연구』 25.
  - 10) 정여울, 2012, 「이효석 텍스트의 공간적 표상과 미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1) 이민부, 2017, 「이효석 문학에서의 지리 인식」, 『문화 역사 지리』 29-4.
  - 12) 이경훈, 2001, 「하르빈의 푸른 하늘: 「벽공무한」과 대동아공영, 김철·신형기 외,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김양선, 2005,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무의식의 양상: 향토와 조선적인 것의 발견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7; 이세주, 2006, 「식민지근대와 이효석 문학」, 연세대학교

에 귀속되지 않는 상상력의 발현이자 대항 담론의 구축 과정으로 보는 연구들도 이루어져왔다.<sup>13)</sup>

이효석은 1932년 관북으로 이주한 이후, 관북을 공간적 배경으로 한 소설을 창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창작경향의 변화는 동반자적 경향에서 순수문학으로의 전향, 사상의 세계에서 자연과 성의 세계로의 귀의 등으로 설명되어 왔다. 즉, 이효석 연구사에서 관북이라는 지역은 이효석 문학의 소재적 전환점이자 주제적 전환점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효석 문학에서 관북 지역은 어떤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효석 문학 전반에 걸쳐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관북 지역을 이효석의 문학적 전환점이나 일시적으로 활용된 소재가 아니라 이효석의 문명비평적 시각과 조우하며 지속되고 반복되고 변주되는 중요한 공간적 배경으로서 다루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관북의 심상지리를 구축하는 동력으로서 이효석의 문명비평적 태도를 중요하게 다루고자 한다. 이효석은 등단 초기부터 ‘민족’, ‘조선인’ 등의 표현보다는 ‘인간’, ‘인류’라는 표현을 더 빈번히 사용했으며 근대문명의 억압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인간의 삶에 지속적인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이효석은 초기 소설부터 후기 소설에 이르기까지 인간적 본능(식욕과 성욕)과 인간다운 삶을 억압하는 근대문명을 비판하기 위해 사회제도나 근대문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자주 등장시켰으며,<sup>14)</sup> 경성의 거리를 ‘쓰레기통’(『인간산문』, 1936.7), ‘음침한 굴’(『계절』, 1935.7)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효석은 식민지 조선의 근대를 ‘산문적 현실’로 인식하고, 산문적 현실을 견디거나 극복하기 위해 ‘시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

---

석사학위논문.

- 13) 방민호, 2007, 「이효석과 하얼빈」, 『현대소설연구』 35; 방민호, 2007, 「자연과 자연 쪽에서 조망한 사회와 역사-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공간의 새로운 음미」, 염무웅 편, 『분화와 심화, 어둠 속의 풍경들』, 민음사.
- 14) 이효석의 습작기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은 근대적인 사회제도에 불만을 품고 이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굶주림을 참지 못해 무전취식을 감행하거나(『주리면』, 1927.3) 괴물같은 기계의 입속으로 스스로의 몸을 던진다.(『맥진』, 1926.1) 공식적인 등단작인 「도시와 유령」에는 근대문물인 자동차로 인해 신체를 훼손당하고 불행한 삶을 영위하는 도시 빈민층의 삶이 형상화되어 있다.

을 견지했다. 이효석 소설에서 ‘시적인 것’은 꿈, 공상, 아름다운 것, 낭만, 이상 등의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효석에게 ‘시적인 것’의 추구란 단순한 도피주의적 심리가 아니라 ‘인간성의 필연’이자 ‘예술의 본질’이었다.<sup>15)</sup> 이렇듯, 이효석은 타락한 근대문명/억압받는 인간이라는 인식론적 틀에 의해 공간을 표상해나갔다. 이러한 이효석의 문명비평적 시각이 관북이라는 지역과 조우했을 때, 관북은 어떻게 표상되는가. 또는 반대로, 관북은 이효석의 문명비평적 시각을 어떻게 조정 혹은 심화하는가. 본고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이효석 문학에 나타난 관북의 심상지리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할 것은, 당시 관북이 제국주의의 영토로서 ‘북선’이라고 불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의 북쪽 지역을 북선이라고 처음 지칭한 것은 1910년대 조선총독부와 『매일신보』 등 일본의 식민주의자들이었고, 식민지 시기 내내 한반도의 북쪽 지역은 식민주의자들의 주도하에 북선이라 불렸다.<sup>16)</sup> 북선개발의 추이를 검토한 고태우의 연구에 의하면, 북선은 식민지 초기 남선지역과 달리 개발이 안 된 암흑지대로서, 자원은 많으나 가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되었다. 1920년대 후반 이후 철도망 형성과 수력발전의 시작으로 개척가능성이 모색되었고, 1930년대부터는 농림업 중심의 북선 개척사업이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었다. 1930년대 후반 이후 총동원체제기에는 일본 대자본의 진출이 본격화하고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조선 개발의 중심지로까지 위상이 변화했다.<sup>17)</sup> 송규진의 연구에 의하면 러일전쟁 이후 관북은 일본과 만주를 잇는 통로로서 주목받았으며 만주사변 이후로 본격적으로 대륙 진출을 위한 ‘북선루트’로서 논의되었다.<sup>18)</sup> 북선루트란 일본의 대륙침략기에 등장한 ‘대륙루트론’에서 사용된 말이다. 대륙루트는 안봉루트, 황해루트, 북선루

15) “이렇게 시에서 산문으로 다시 산문에서 시로 옮기는 동안에 문학이 자랐으며 꿈과 리알리티가 혼합된 곳에 예술이 서게 된 듯하다. 아무리 리알리즘을 궁극하야도 그 속에는 모르는 곁에 꿈이 내포되는 법이니 그것이 인간성의 필연이며 동시에 예술의 본질인지 모른다.”(이효석, 1937.7.29, 「나의 수업시대-작가의 율행이때 이야기(3)」, 『동아일보』)

16) 이경돈, 2019, 「北鮮의 기억-식민에서 분단까지, 공간각각의 표상들」, 『대동문화연구』 106, 96쪽.

17) 고태우, 2020, 「식민지기 ‘북선개발(北鮮開發)’ 인식과 정책의 추이」, 『한국문화』 89, 193쪽.

18) 송규진, 2013, 「일제의 대륙침략기 ‘북선루트’·‘북선3항」, 『한국사연구』 163, 382쪽.

트로 분류되며, 그 중 북선루트란 니가타, 쓰루가에서 동해를 횡단하여 나진, 청진, 용기 등 ‘북선3항’을 거쳐 길회선(길림~회령)을 경유하여 동북만주와 연락하는 루트를 지칭하는 말이다.<sup>19)</sup> ‘개발’이나 ‘개척’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어감과 달리, 북선 개발은 실상 북선 수탈과 다르지 않았다.<sup>20)</sup> 북선 개발은 관북을 근대화하는 동시에 관북 주민들의 생활과 관북의 자연을 파괴하였고, 이효석은 이러한 관북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했다.

이 글에서는 관북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은 이효석의 작품을 대상으로, 이효석이 문명비평적 시각에 의거하여 어떠한 인식론적 지도를 만들어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효석 문학의 심상지리가 식민 권력에 의해 개발되는 실제 관북의 지리 및 제국주의적 담론에 의해 구성된 북선 표상과 겹쳐지거나 어긋나는 국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관북 표상의 지속과 변주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효석이 함북 경성에 거주했던 시기인 1932년~1936년을 기준으로 하여, 2장에서는 관북 거주 이전의 작품을 중심으로, 3장에서는 관북 거주 중에 창작한 작품을 중심으로, 4장에서는 관북을 떠나 평양에서 거주할 때 창작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국경도시로서의 북선과 개방의 환상

이효석이 관북을 처음 방문한 시기는 1929년으로 추정된다. 1931년 7월 26일에 쓰고 9월에 발표한 수필 「북국풍물」(『시대풍문』, 1931.9)에서 이효석이 ‘내가 북국을 찾은 것은 이것이 벌써 세 번째-재작년 여름, 작년 여름, 그리고 올 여름’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이다. 「북국점경」은 1929년 11월에 발표된 소설인데, 이 소설

19) 송규진, 2013, 위의 논문, 380-381쪽.

20) 우가키 가즈시게 총독은 조선에 정식으로 부임하기 전 임시로 조선총독을 맡았을 때부터 북선수탈정책을 구상했으며, 총독으로 정식 부임한 후 더욱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안유림, 1994, 「1930년대 총독 宇垣一成의 식민정책-북선수탈정책을 중심으로」, 『梨大史苑』 27, 148쪽).

에서 이효석은 1929년 여름에 관북을 여행한 경험에 의거하여 관북의 풍경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북국점경」은 '능금', '마우자', 'c역 풍경', '비행기', '모던 걸·펠론'의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효석이 소설의 첫 부분에 배치한 것은 관북의 능금밭이다. 이효석은 관북의 능금밭을 기독교 신화 속의 에덴동산에 비유한다. 나아가 이효석은 능금꽃을 '마을 사람의 꿈'에 비유하고, 능금 먹는 관북의 처녀와 총각을 아담과 이브에 비유한다. 이러한 비약적 연결은 이효석의 문명비평적 시각에 의해 추동된다. 이효석은 개발 이전의 관북을 에덴동산과 같은 낙원으로 간주하고, 식민권력에 의한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관북의 현재를 실낙원으로 간주한다. 이효석은 타락한 근대문명/고통받는 인간이라는 인식론적 프레임으로 관북 지역의 근대화를 바라보았고, 이러한 인식론적 프레임은 관북을 '미개한 식민지의 지방'으로 표상하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준다.

    꽃피고 열매맺든 향기로운 능금밭! 그 것을 까뭉귀고 그 우에 덩거장이 섰다.  
    능금수레 굴느든 석양의 마을길 그 우에는 두 줄기의 철로가 낫서른 꿈을 실고  
    한업시 뼈쳤다.

    그리고 창고와 회관의 모난 집이 언덕을 넘어 웃뚝웃뚝 섰다.  
    싹틔는 연기 아름다운 이악이를 뺏고 뽕키냄새 꽃향기를 집어삼켰다.  
    철로는 만주속을 실어오고 이사꾼을 실어갔다. 처녀는 청루로 실어 날고 청년  
    은 감옥으로 실어 날렸다.

    연기 뽕키 철로 덩거장 공장 창고 회관..  
    이것이 이제 북국의 이 마을의 새로운 풍경이다. 이즈레진 그림이다.  
    산문의 독기 온전히 마을의식을 죽여버렸다.

    그러나 변치안코 아름다운 것은 햇빛과 달빛이다. 무거운 능금송이 낙하든 햇빛  
    밤의 능금꽃 빗취든 달빛 여전히 가튼 빛으로 철로 공장 회관...을 빗취고 있다.<sup>21)</sup>

21) 이효석, 1929.11, 「北國點景」, 『삼천리』 제3호.

관북의 능금밭 위에는 정거장이 들어서고, 능금 수레가 다니던 마을길에는 만주로 이어지는 철도가 놓인다. ‘비행기’의 장에는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마을의 풍경과 그 풍경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불안한 심정이 서술되어 있다. 이효석은 마을의 변화된 요소들을 나열하여 에텐동산으로서의 관북이 북선 개발 정책으로 인해 실낙원이 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관북에는 식민권력에 의해 교통망이 확충되어 갔는데, 1928년에는 함경선(원산-회령), 1933년에는 길회선(길림-회령)이 개통되었다.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일본과 조선과 만주를 잇는 침탈의 루트가 구축된 것이다. 이효석은 이 침탈의 루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효석은 C역(청진역)의 풍경을 ‘흰옷 양복 게다가 중국군인 쿨리 마우재 국경의 도시에는 이제 국적을 달리한 못사람이 쏟아져 나왔다.’는 문장을 통해 집약적으로 제시한다. 나아가 이효석은 러시아로 사회주의 운동을 하러 간 아들의 죽음을 알게 된 어머니의 슬픔을 서술하고 회령 여성이 참외 안에 무기를 넣어서 운반하다가 심문에 걸리는 모습을 묘사한다. 이를 통해 이효석은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 있는 인물들이 관북을 통로로 삼아 이동하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표현한다.

이효석은 이 소설에서 관북을 ‘북국’이라고 지칭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관북의 개방성을 전경화한다. 이효석 소설에서 ‘북국’이라는 말은 관북 이외에 만주와 러시아를 지칭할 때도 사용된다. 이러한 표현법은 비단 이효석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기 조선 문학에서 통용되었던 것이었다.<sup>22)</sup> 이효석은 만주 및 러시아로 열린 공간으로서 관북을 표상하고자 했으며, ‘북국’이라는 표현의 선택은 이효석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의도는 「북국점경」 이후에 창작된 「노령근해」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노령근해」(1930.1)는 「북국점경」의 속경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단편소설로,

22) 이현주의 연구에 의하면, 식민지 시기 문학에서 북국이라는 표현은 관북뿐만 아니라 하얼빈, 만주, 러시아를 지칭할 때에도 사용되었으며, 이국, 이상향, 고향 등과 접속하는 기호였다. 이현주는 북국 3부작을 현실적으로 독자적인 영토를 가지지 못했던 식민지 청년 독자들의 새로운 영토(국가)에 대한 상상과 열망을 최대치로 드러낸 작품이라고 분석한다(이현주, 2014, 「1920년대 후반 식민지 문학에 나타난 ‘북국’ 표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44).

관북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청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청년은 마우자와 같이 일하는 동무를 만나기 위해 동해안의 항구에서 배를 타고 늘상 ‘꿈 꾸던 나라’인 러시아로 향한다.

동해안의 마지막 항구를 떠나 북으로 북으로! 밤을 새우고 날을 지나니 바다는 더욱 푸르다.

하늘은 차고 수평선은 멀고.

벃전을 물어뜯는 파도의 흰 이빨을 차면서 배는 비장한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마스트 위에 깃발이 높이 날리고 연기가 찬바람에 가리거리 찢겨 날린다.

두만강 넓은 하구를 건너 국경선을 넘어서니 노령(露嶺) 연해의 연봉이 바라보인다—하얗게 눈을 쓰고 북국 석양에 우뚝우뚝 빛나는 금자색 연봉이.<sup>23)</sup>

위의 인용문에서 북국은 러시아를 가리킨다. 이 소설에는 관북지역의 향로를 통해 러시아로 향하는 사람들의 가지각색의 사정과 공통의 고통이 서술되어 있다. 돈을 벌기 위해 가는 사람, 다 같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막연히 꿈꾸는 사람, 서울로 공부간다고 집 떠난지 열세 해 만에 아라사에 가서 객사한 아들의 뼈를 추리러 가는 불쌍한 어머니, 돈 벌기 좋은 항구를 찾아가는 여자, 오십이 넘은 노인, 그리고 만국 지도를 든 청년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괴롭에 지친 수많은 얼굴들’이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북국으로 향한다. 「노령근해」의 서사는 이후 「상륙」, 「북국사신」으로 이어지는데, 「북국사신」의 주인공 청년은 러시아에서 노동자의 오아시스를 경험하고, 낮에는 노동자로 밤에는 카페의 연주자로 활동하는 아름다운 여성 사-샤의 사랑을 얻게 된다. 이 소설에서 러시아는 노동과 예술이 조화를 이룬 이상적인 사회로 표상된다. 「북국점경」과 북국 3부작(「노령근해」, 「상륙」, 「북국사신」)을 이어서 읽어보면, 이효석이 개발로 인해 변해가는 관북을 실낙원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러시아를 이상적인 대안 문명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효석은 네 편의 소설을 통해 일본-관북-만주로 이어지는 개

23) 「露嶺近海」, 1930.1, 『조선강단』.

척의 루트가 아니라, 항로를 통해 관북과 러시아를 잇는 모험과 희망의 루트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이효석의 창작방법은 실제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되기도 했다. 일례로 이원조는 이효석이 함경도의 정확한 지역명을 쓰기 보다는 ‘관북’이라고 즐겨 썼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이효석 소설에 실제감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sup>24)</sup> 실제로 이효석의 글에서 함경도의 지역명은 경성, 나남, 독진 등으로 명확하게 지칭되는 경우도 있지만, 북쪽, 북국, 북방, 관북, 동해안 등으로 추상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원조의 글은 이효석 소설의 실제감이 희박한 것을 비판하고 있기는 하나, 역설적으로 이효석의 창작방법의 특징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 이효석은 관북의 정치지리적 특성과 실제 지리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제감 있게 재현하지 않았고 개방의 상상력을 통해 러시아와 이어진 곳으로 표상했다.

이 시기 이효석이 관북 지역을 예술적 재료로서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로서 「북국풍물」(1931.9)을 참조해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이효석은 북국의 자연에 유다른 호감과 비상한 감격을 느꼈다고 쓰면서, 이러한 자연을 소재로 한 좋은 문학이 탄생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드러낸다. 이효석이 보기에 북국은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곳이자, 자본주의와 싸우는 바다 노동자의 생활이 펼쳐지는 곳이었다. 이효석은 북국에서 해양문학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사실 이 북국의 풍물, 더욱이 바다의 미가 아직까지 표현의 은덕을-자연은 그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나-입지 못한 것은 아까운 일이다. (중략) 바다와의 접촉면이 많은 우리로서 지금까지 좋은 해양문학을 가지지 못한 것은 오히려 괴이한 일이다.

푸른 바다 아름답고 포구에 고기잡이 성하고 바다 노동자의 바다와 자본주의에 대한 싸움이 끝일 새 없고-이러한 좋은 소재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북국에서 부터 좋은 해양문학이, 그 길의 천재가 앞으로 모름지기 무력무력 자라나오기를 바란다. (중략)북선의 구석구석에 산업의 부문 부문에 침범한 일본의 금융 자본이 이

24) 이원조, 1939.10, 「이효석론-해바라기 저자에게 부치는 서한」, 『인문평론』 제1호.

곳만은 아직 다치지 않았으므로 대규모의 근대적 공장이 포구를 독점하지 못하였고 근데근데 산재하여 있는 소규모의 군소 공장에서 원시적 생산이 경영되어 나간다. 공장이라야 우로를 헤아리지 않은 노천식의 간단한 구조요 기술이라야 지극히 단순한 것이다. 이 어업의 성질로 보아 아무리 규모를 크게 한다 할지라도 이 이상 더 완전한 설비와 장대한 건물은 그다지 필요치 않을 것이다.<sup>25)</sup>

이효석은 일본의 금융 자본이 북선에 침범했지만 그것이 북선의 포구를 완전히 독점하지는 못했고, 더 이상의 설비도 건물도 필요 없다고 말하며 식민권력에 의한 북선 개발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이효석이 감탄하는 것은 일본의 금융 자본에 의한 북선의 개발이 아니라 포구의 자연과 그 자연 속에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이효석은 포구의 풍경을 마주하고, 극작가 싱(John Millington Synge)의 문학작품에 자주 등장했던 애런(Aran)제도(諸島)의 섬을 떠올린다. 애런 제도는 아일랜드 서해안에 위치한 섬으로, 싱은 척박하고 황량한 애런 제도의 농어민들의 생활을 제재로 문학을 창작했다. 이효석은 경성제대 졸업논문으로 싱의 희곡에 대한 연구를 제출했을 정도로 싱의 문학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이효석은 싱의 희곡에 대하여 싱이 “개척되지 않은 애런 제도의 소박한 농민과 밀접히 접촉”하면서 예술적 영감을 받았고, “상상적 요소”와 리얼리즘을 결합하여 “애란 농민과 농부의 내적 쟁투를 경탄할만한 어사”로 그려냈다고 분석했다.<sup>26)</sup>

포구의 풍물을 대할 때마다 나는 싱이 그의 희곡과 기행에서 표현한 애란의, 더 욱이 애런 도의 풍물을 연상한다. 양자 사이에는 흡사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되는 까닭이다.

바다로 말 달리는 사람들의 배경은 곧 독진같은 포구가 아닐까. 붉은 말이 있고 검은 도야지가 있고 붉은 돛대가 있고 바위가 있고 널찍이 있고-싱의 희곡 속에 나올 필요한 것이 이곳에 다 구비하여 있는 것이다.(5권:9쪽)

25) 이효석, 1931.9, 「북국풍물」, 『시대공론』(이효석문학재단 편, 『이효석 전집』 5,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6~7쪽에서 재인용, 이하 전집에서의 재인용은 권수: 쪽수로 표기하도록 한다).

26) 이효석, 1930.3, 「존 밀리턴 싱의 극 연구」, 『대중공론』(5권: 429~432쪽).

이효석은 조선의 동해안에 있는 독진항과 아일랜드의 서해안에 있는 애런의 섬을 비약적으로 연결한다. 이효석의 문학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비약적으로 연결하는 연상법을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연상법이 이 수필에서도 발견된다. 서로 다른 두 항 사이의 유사성을 읽어내고 연결시키는 능력을 통해 이효석은 관북의 바다와 아일랜드의 서해안을 연결하고, 관북을 '식민지의 지방'이라는 폐쇄적인 범주가 아닌 '해양문학'이라는 세계문학적 범주 속에 놓고 고찰한다. 이효석은 관북의 정치지리적인 면을 잘 알고 있었으나, 그러한 정치지리에 자신의 상상력을 가두지 않았다.

이효석은 관북의 포구를 제재로 삼아 「마작철학」(『조선일보』, 1930.8.9.~20)을 창작한다. 이 소설은 관북의 정어리 어업을 둘러싼 노동자와 소자본가, 식민자본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식민지 시기 동해는 일본의 内海로 간주되었고 대륙 진출을 위한 통로이자 어족 자원 수탈의 장으로 활용되었다.<sup>27)</sup> 특히 1920-1930년대에는 정어리 열풍이 불었는데, 이효석은 이를 소재로 노동자가 소자본가를 상대로 파업을 단행하여 승리를 쟁취한다는 서사를 창작했다.<sup>28)</sup> 이 소설에서 북국의 바다는 '포구 사람들의 살림터'이자 '싸움터'로 표현된다. 이효석은 포구의 노동자들이 해변의 태양빛과 해초냄새 속에서 노동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그려낸다. 이 소설에서 노동자들은 '강선생'의 지도하에 정구태를 상대로 파업을 벌인다. 소자본가 정구태는 초반에는 바다와 노동자를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하나, 점차 해초 냄새를 맡으며 건강한 성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는 '이태 동안의 해변생활'을 통해 정어리 시세 폭락의 배후에 '일본에 있는 대자본의 회사 합동유지 글리세린 회사의 임의의 책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해변에서 떼를 짓고 고함치며 노동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속에서 새로운 철학을 발견하게 된다. 소설 「마작철학」과 수필 「북국풍물」을 연관 지어 살펴보았을 때, 이효석은 「마작철학」을 통해 노동자가 "바다와 자본주의에 대한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싱의 문학과 같은 해양문학을 시도해본 것으로 보인다. 이효석은 실제 관

27) 심재욱·이혜은·민원기, 2017, 「일제강점기 淸津의 팽창과 정어리 어업」, 『역사와 실학』 63.

28) 전봉관, 2022, 「이효석의 「마작철학」과 문화 현상으로서 「정어리 열풍」」, 『한국현대문학연구』 66.

북의 정어리 사업을 제재로 삼았지만, 관북 노동자의 특수한 상황을 그려내는 데에 집중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의 대결, 인간과 노동의 관계라는 세계문학적인 보편성을 담은 주제로 나아간다.

지금까지 「북국점경」, 북국 3부작, 「마작철학」을 통해, 이효석이 관북 거주 이전에 관북을 어떻게 표상했는지 살펴보았다. 「북국점경」과 북국 3부작에서 관북의 철로와 항로는 침탈의 루트가 아닌 모험의 루트로 그려진다. 또한 「마작철학」에서 관북의 바다는 수탈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길항하는 장으로서 그려진다. 이효석은 관북의 고통망(철도, 항구)과 관북의 산업을 소설의 중요한 제재로 삼았으나, 북선 개발 담론과는 반대로 관북을 실낙원으로 표상하면서 고통스러운 현재를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소망과 기쁨을 담은 소설을 창작했다. 이효석은 문명비평적 시각에 입각하여 관북의 근대화를 타락과 상실로 간주하고 관북을 대안적 시공간과 연결하는 수사와 서사를 고안한다. 이러한 창작 과정에서 관북은 에덴동산이라는 기독교 신화의 공간과 연결되기도 하고, 러시아라는 사회주의 혁명의 공간과 연결되기도 하며, 아일랜드라는 세계문학적 공간과 연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약적 연결을 통해 제국의 영토로서의 북선과 이효석의 인식론적 지도상의 관북은 분명한 차이를 지니게 된다. 북선개발담론상의 관북은 일본과 만주를 이어주는 개척가능한 영토였지만, 이효석의 문학에서 관북은 식민 권력에 의해 변해버린 실낙원이면서, 동시에 이상적인 공간과 연결가능한 개방적인 공간이다. 이효석은 식민지/제국, 지방/중앙의 공간 표상 대신 '타락한 근대문명/새로운 낙원'의 공간표상을 제시했다.

### Ⅲ. 농촌으로서의 관북과 능금꽃의 의식

1932년, 이효석은 함북 경성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경성농업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게 된다. 이 시기 이효석이 창작한 「약령기」(『조선일보』, 1933.8.3.~8.19), 「돈」(『조선문학』, 1933.10. 1935년 3월에 『삼천리』에 재수록), 「수탈」(『삼천리』, 1935.11)에는 농촌으로

서의 관북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약령기」와 「수탑」에는 관북의 농업 학교가, 「돈」에는 관북의 종묘장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시기 이효석은 관북에 거주하면서 농촌으로서의 관북의 모습과 관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기에, 이전 시기보다 더 생생하게 관북의 풍경과 사람들의 생활상을 재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세 편의 소설들에서는 리얼리즘적 재현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포착된다. 이 장에서는 세 편의 소설을 통해 이효석이 관북에서 거주하면서 관북을 어떻게 표상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장 먼저 발표된 「약령기」에 형상화된 관북의 모습을 살펴보자. 이효석은 「약령기」의 주인공 학수의 농업학교 생활과 농촌 생활을 자세한 서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학수는 세금과 수업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물이다. 학수는 사랑하는 금옥이가 돈 있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된 것을 원통해하지만 아무런 ‘힘’도 ‘수단’도 없기에 괴로워한다. 학수는 금옥의 혼인 소식을 듣고 해변으로 가서 하이네의 시를 읽는다.

역세인 손아귀로 노르웨이 숲 속에서  
 제일 큰 참나무 한 대 잡아 뽑아다  
 타오르는 에트나의 화산 속에 담귀  
 새빨강계 단 그 위대한 붓으로  
 어두운 하늘에 즐기치게 써 볼까  
 ‘아그네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학수는 두 번 세 번 거듭 여남은 번 이 시를 읽었다. 읽을수록 알지 못할 위대한 흥이 솟아나왔다. ‘아그네스’를 ‘금옥이’로 고쳤다가 다시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고쳐 보았다. ‘동무’로 해 보았다. ‘이 땅’을 놓아 보았다. 나중에는 ‘세상’으로 고쳐 보았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위대한 감격이 가슴속에 그득히 북받쳐 올라왔다.

「백두산 꼭대기에서 제일 큰 참나무 한 대 뽑아다 이 가슴의 열정으로 시뻘겍게

달귀 가지고 어두운 하늘에 줄기차게 써볼까. 그 무엇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고.」(1권: 394쪽)

이 시는 하이네의 시집 『노래의 책』에 수록된 「북해」의 연작시 6번으로,<sup>29)</sup> 하이네가 북해에서 창작한 시이며, 아그네스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이효석은 아그네스와 금옥이를 연결하고, 노르웨이의 숲과 백두산 꼭대기를, 전나무와 참나무를 연결하여 학수와 금옥의 서사를 관북 거주민의 특수한 상황으로 환원하지 않고, 보편적인 사랑의 차원으로 확장한다. 나아가 이효석은 학수의 고통을 ‘사랑’의 문제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학수의 괴로움은 일차적으로는 사랑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가난과 부자유’ 때문이다. 그래서 학수는 아그네스를 ‘동무’로, ‘이 땅’으로, ‘세상’으로, 그리고 ‘그 무엇’으로 다시 쓰며 자신의 ‘개인적 변민’을 ‘전 인류적 더 큰 변민’의 문제로 확장해서 생각해본다. 학수는 이러한 인식의 확장을 용걸과 함께 공유한다. 용걸은 경성의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쫓겨나서 관북으로 온 인물로, 학수와 마찬가지로 가난 때문에 사랑을 잃었다.

「개인적 변민보다도 우리에게는 전 인류적 더 큰 변민이 있지 않은가.」

드디어 이렇게 말하게까지 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도 오늘에는 개인적 변민을 청산하고 새로 쫓는 위대한 열정을 얻었던 말이네.」

하고 학수는 해변에서 느낀 감격이 사라질까를 두려워하는 듯이 흥분된 어조로 그 하루를 해변에서 지낸 이야기와 하이네 시에서 얻은 위대한 감격을 이야기하였다.

「하, 그렇게 훌륭한 시가 있던가—읽은 지 오래여서 하이네도 이제는 다 잊어버렸군.」

하이네의 시를 듣고 용걸이도 새삼스럽게 감탄하였다.

29) 1920년 『현대』 창간호에 『노래의 책』에 수록된 시 3편이 번역소개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하이네의 시와 하이네에 대한 평론이 증가하여 1920-1930년대 조선에서는 하이네의 시가 애송되었다(김병철, 1975, 『한국근대번역문화사 연구』, 을유문화사). 하이네의 『노래의 책』에는 하이네가 1817년에서 1826년까지 창작한 「젊은 날의 슬픔」, 「서정적 간주곡」, 「귀향」, 「하르츠 여행에서」, 「북해」의 총 5개의 연작이 수록되어 있다.

「백두산 꼭대기에서 제일 큰 참나무 한 대 잡아 뽑아다 이 가슴의 열정으로 시뻘  
짙게 달귀 가지고 어두운 하늘에 즐기차게 써볼까 —짓밟힌 ×××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고.」(1권:397쪽)

학수는 용결과 대화하며 ‘그 무엇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라는 구절을 ‘짓  
밟힌 ×××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로 고쳐 읽는다. ‘짓밟힌’이라는 표현은  
학수와 용결, 그리고 인류가 억압적인 상황에 처해있음을 강조해서 보여준다. 이  
이효석은 학수를 통해 하이네의 시를 다시 쓰고, 이와 같은 다시 쓰기의 과정을 통  
해 가난과 부자유로 인한 학수의 고통은 개인적 변민의 차원으로 수렴되지 않고  
인류 공통의 차원으로 확장된다. 소설의 후반부에서 금옥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학수는 금옥의 죽음으로 각성하여 고향 관북을 떠나기로 한다. 이러한  
서사 전개는 다소 막연하고 비약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설 끝부분에 삽입된 “막  
연한 모험과 비약—이것이 없이 큰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장으로 추정해보건  
대, 이러한 막연함과 비약은 이효석의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 수필에서 이효  
석은 「약령기」와 「돈」의 창작의도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최근 약령기와 돈에서 리얼리즘을 시험하여 보았으나 이 역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후자에 있어서는 신경, 텔리카시, 기분, 향기-이런 것을 담으려  
고 애쓴 결과 리얼과의 거리가 약간 멀어진 듯하다. ‘낭만적’이라는 비난이 있다  
하면 그것은 이 작품의 텔리카시의 소치일 것이다. 그러나 해작이 리얼리즘의 작품  
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첫 대문과 끝 대문-물론 리얼리즘이다. 그 이상의 리  
얼리즘-나는 그것을 즐겨하지 않는다. 나의 성에 비위에 맞지 않는 까닭에.

요컨대 리얼리즘의 길은 쉽고도 어렵다. 어렵고도 쉽다. 다만 궁극의 리얼리즘의  
길을 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을 뿐이다.<sup>30)</sup>

이효석은 「약령기」와 「돈」에서 농촌으로서의 관북과 그곳 주민들의 생활상을

30) 이효석, 1934.1.13, 「낭만 리얼 중간의 길」, 『조선일보』.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만, ‘궁극의 리얼리즘’, ‘그 이상의 리얼리즘’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신경, 텔리카시, 기분, 향기’를 담아 의도적으로 낭만과 리얼 사이의 길로 나아가고자 했다. 이효석이 낭만을 담으려고 애쓴 결과물이라고 밝힌 소설 「돈」을 살펴보자. 「돈」에서 이효석은 농촌 수탈로 피폐해져가는 관북과 그 속에서 씨받이 돼지로 겨우 생계를 이어나가는 농민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만, 사실적 묘사에만 집중하지 않고 탈향을 통해 분이와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식이의 내면을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철로를 끼고 올라가 정거장 압흘 지나 오촌포행 길에 나서니 장보고 도라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드문드문 보인다. 산모퉁이가 바다바람을 막아 안옥한 녀적빛이 행길 우를 덮었다. 먼 산 우에는 전기의 고가선이 솟고 산뿔뿔이 물줄기가 돌아나 뿔뿔다. 온천가는 넓은 도로가 철로와 나란히 누워서 남쪽으로 줄기차게 뻗었다. 저 무리가는 강산 속에 아득하게 뻗친 이 두 줄기의 길이 새삼스럽게 식이의 마음을 끌었다. 걸어가는 그의 등 뒤에서는 산모퉁이를 돌아오는 기차소리가 아련히 들린다. 별안간 식이에게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길로 아무데로나 다라날가.」

장에 가서 도야지를 팔면 로자가 되겠지. 차타고 로자 자리는 곳까지 다라나면 그곳에 곳 분이가 잊지 안을가. 어데서 들었는지 공장에 들어가기가 분이의 소원이 드니 그곳에서 녀적공 노릇하는 분이와 만나 나도 「로동자」가 되어 가티 살면 오죽 재미있을까. 공장에서 버는 돈을 달마다 고향에 붓치면 아버지도 더 고생하실 것 업겠지. 도야지를 방에서 길이지 안어도 좃코 세금 못냈다고 면소 서기들한테 밥솥을 빼길 염려도 업슬터이지. 농사가티 초라한 업이 세상에 또 잇슬가. 아무리 부즈런히 일해도 못살기는 일반이니... 분이 잇는 곳이 어데인가... 도야지를 팔면 열마나 바들가.- 이 도야지. 암도야지 양도야지...<sup>31)</sup>

이효석은 전기와 철도와 같은 근대적 인프라가 들어온 관북의 풍경을 보여준다. 두 줄의 철로를 바라보며, 산모퉁이를 돌아오는 기차소리를 들으며, 식이는

31) 이효석, 1935.3. 「豚」, 『삼천리』 제7권 제3호.

고향을 떠나 분이와 함께 노동자가 되는 꿈을 꾸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짧은 공상의 시간마저 허락하지 않아서, 식이가 공상에 빠져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돼지는 기차에 치여 죽고 만다. 철로는 식이에게 탈향을 꿈꿀 수 있는 열린 통로처럼 보였지만 이내 그 소망은 좌절된다.

이처럼 「약령기」와 「돈」에서 이효석은 관북 농촌의 현실은 사실적으로, 탈향의 소망은 낭만적으로 서술하며 낭만과 리얼中间的의 길을 시험해나갔다. 「수탉」에서도 리얼리즘적인 요소와 낭만적인 요소는 공존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 을손 역시 「약령기」의 학수와 「돈」의 식이와 마찬가지로 가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복녀와의 사랑에 실패한다. 을손은 학교의 농장에서 능금을 훔쳐서 정학을 당하게 된다.

능금을 따고 락원을 쫓기운 것은 전설이나 능금을 따다 학원을 쫓기운 것은 현실이다.

농장의 능금은 금단의 과실이었다.

을손들은 그 룰칙을 어긴 것이다.

동무들의 꼬임에 빠졌다느니보다도 을손 자신 능금의 유혹에 빠졌든 것이다. 능금은 사치한 욕망이 아니다. 필요한 식욕이었다.(중략)

을손은 현재 취도를 받고 잇슬 당변의 동무들과 자신의 형편조차 니저 버리고 유유히 주머니 속에서 담배를 한 개 집어 내서 불을 붙였다. 실상인즉 담배도 능금과 가티 금단의 룰칙이었스나 룰칙을 어김은 인류의 조상이 끼쳐 준 아름다운 공덕이다. 더구나 그곳에서 한 목숨 피우기란 무상의 깃뵈미라고 을손은 생각하는 것이었다.<sup>32)</sup>

인용문의 첫 문장에서 이효석은 능금을 따고 낙원에서 쫓겨난 기독교 신화와 능금을 따다 학교에서 쫓겨나게 된 을손의 처지를 비교한다. 이효석은 기독교 신화의 에덴동산과 학교의 농장을 연결하고, 을손의 일탈을 ‘인류의 조상이 끼쳐준 아름다운 공덕’이라고 표현한다. 을손은 ‘양상한 밤송이 같은 현실’의 ‘좁고 거북

32) 이효석, 1933.11, 「수탉」, 『삼천리』 제7권 제10호.

한 굴레'를 벗어나 '아무데로나 넓은 세상으로 뛰고 싶다'는 소망을 오랫동안 지녀왔지만, 그러한 소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와 닮은 수탉의 목을 졸라 죽인다. 이효석은 이 소설에서 관북지역을 특정할만한 어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수탉」의 창작시기와 농업학교라는 소재를 단서로 이 소설이 이효석이 경성농업학교 교사 시절에 농업학교를 소재로 삼아 창작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효석은 관북의 '실제감'을 '멸살'하여 을손이 겪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전경화한다.

관북에 거주하기 이전, 여행자로서의 이효석은 관북 바다의 아름다움과 관북 노동자들의 힘을 보며 비상한 감격을 느꼈고 해양문학을 구상했다. 이효석에게는 낙관적인 전망이 있었고 그렇기에 관북과 아일랜드, 관북과 러시아를 비약적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북 거주 이후 창작된 소설들에서는 피폐한 생활의 장소로서의 농촌으로서의 관북의 모습이 부각된다. 이효석이 관북에 거주하면서 본 것이 농촌 수탈로 인해 피폐해져가는 현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음을 세 편의 소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효석은 관북인들의 고통과 소망을 개인적 변민이나 지방적 특수성으로 환원하지 않고, 문명비평적 시각을 통해 인류적 차원에서 인간 본연의 식욕과 사랑의 문제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효석은 이 세 편의 소설에서 관북의 피폐한 현실을 벗어나 도달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을 특정한 국가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이 소설 속 인물들은 현실의 중력을 강하게 받고 있기에 북극 3부작의 인물들처럼 특정한 국가에 쉽게 도착하지는 못하고 떠나기 전에 좌절을 경험하거나(「돈」), 떠나지 못하고 자기파괴적인 행동(「학수」)을 한다. 세 편의 소설의 인물들은 지금 여기를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저기 어딘가를 강하게 소망할 뿐이다.

척박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지치지 않고 소망하는 마음은 이효석의 소설에서 '능금꽃'에 비유된다. 「10월에 피는 능금꽃」(1933.1)에서 주인공은 해골 같이 앙상한 마을의 산문적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자연과 책 속으로 도피하고자 하고자 하는 “돈키호테적 방황”을 반복한다. 그러나 동무를 통해 화자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마을 사람들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그로 인한 우울과 슬픔을

견디지 못해 마을 밖으로 뛰어나간다. 그렇게 도착한 벌판에서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한다.

그 거르른 벌판에서 나는 하로 아침 놀나운 것을 발견하였다. —헐벗은 능금밭 마른 가지에 돌연히 꽃이 핀 것이다. 희고 조출한 두어 떨기의 꽃이 마치 기적가티 마른나무 가지에 열녀 잊지 안는가. 대체 이런 법도 있는가. —너무도 놀난 나는 잠시 말업시 물끄러미 꽃을 바라보았다. 건너편 관모봉의 흰눈과 시월에 피는 능금 꽃—이것을 비겨볼 때 이 시절을 무시한 능금 꽃의 아름다운 그개에 다시 탄복하지 않을 수 업섰다.

「습혀 말라. 시월에도 능금 꽃은 피는 것이다!」

별안간 솟아오르는 힘을 전신에 느끼는 나는 감동에 취하여 쉽사리 그곳을 떠나기가 어려웠다.<sup>33)</sup>

시절을 무시하고 마른 가지에서 돌연히 피어난 희고 아름다운 능금꽃을 마주하고 화자는 슬픔을 이겨낼 힘을 얻는다. 「약령기」에도 이 능금꽃이 등장한다. 학수는 마른가지에 피어난 흰 꽃을 보며 “‘능금꽃’의 의식”을 새삼 마음속에 떠올리고, 능금꽃의 힘에 괴이함을 느끼는 동시에 경탄한다. 이효석 소설에서 마른 가지에서 피어난 능금꽃은 산문적 현실을 이겨내고 기적같이 소망을 피워내는 힘을 상징한다. 이효석은 소설의 주인공들에게 능금꽃의 의식을 부여함으로써 산문적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소망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소망의 세기는 산문적 현실의 피폐함을 강렬하게 대비춘다.

#### IV. 피서지로서의 관북과 구라파주의

이효석은 1936년 평양으로 거주지를 옮기지만, 거주지를 옮긴 이후에도 주을

33) 이효석, 1933.1, 「十月에 피는 林檎꽃」, 『삼천리』 제5권 제1호.

을 비롯한 관북에 대한 글을 발표한다. 1937년 7월에 발표된 수필 「피서지 관북 통신」에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관북을 찾은 이효석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효석은 바다와 온천이 가까운 함북 경성에 머무르며 쇠잔해진 건강이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그는 “문화의 보급향상은 인류로서 물론 소망의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인간 본연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문화생활이 “인간생장에 도리어 해가” 되기 때문에 관북에 머무는 동안 단순한 생활을 해보고자 한다. 1937년 8월에 발표한 「주울의 지협」에는 주울 온천 근처의 풍경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효석은 사시나무와 자작나무와 개울의 초초함과 깨끗함에 경탄하고, 그곳을 선경(仙境)에 비유한다. 평양으로 이주한 시기에 쓰인 두 편의 수필에서, 관북은 이효석에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휴식처가 되어 주고 있다. 이효석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해수욕장과 고요한 주울 온천을 구분 짓고, 주울 온천을 자연과 문명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으로 바라본다.

그런 개울가 산 속에서 보낸 몇 시간을 나는 잊을 수 없다. 창 밖에는 안개가 서리었고 요란한 물소리에 방구석에 쫓은 새풀의 이삭이 흔들흔들 떨렸다. (중략) 지협은 소요에 지쳤을 때 오리 길만 걸으면 다시 거리에 내려와 여관 온천물에 잠길 수 있다. 지협은 지지(地誌)는 안내기의 말 아니라도 온천가의 기록은 자세할 것이니 여관의 선택쯤은 수고로울 것 없다. 피서 때에도 온욕은 필요한 것이니 주울 온수의 쾌미는 또한 각별한 것이 있다. 넓은 욕전에서 홀로 몸을 쉬이면서 개울로 향한 창으로 바로 창밖 느티나무와 개울과 건너편 산허리를 바라보노라면 하루의 피곤도 자취 없이 사라진다. (중략) 고요하고 적막하고 사색적인 점에 요란한 해수욕장과는 스스로 다른 맛을 가진 곳이 주울의 온천이요 지협이다. 지협은 魚肝油-개울과 구름과 나무와-그리운 소원의 것이다. (5권:214쪽)

위 인용문에서 주울 지협은 자연과 식당과 여관은 조화롭게 연결된 공간으로 묘사된다. 이효석은 자신이 경험한 실제의 주울 온천을 소설에서는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을까. 1939년에 발표된 장편소설 『화분』에는 주울 온천이 중요한 공간으로 등장한다. 『화분』은 현마와 세란 부부, 세란의 동생 미란, 미란의 음악교사

영훈, 현마의 비서 단주, 식모 옥녀가 등장하는 소설이다. 미란은 애욕의 세계(단주, 현마)를 힘겹게 벗어나서, 영훈과 함께 예술과 사랑의 세계로 나아간다. 이 과정에서 동경, 관북, 하얼빈 등 다양한 장소가 소설적 배경으로 활용되는데, 그 중 관북의 주을 온천은 영훈과 미란이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장소다.

소설 중반부에서 미란은 주을온천의 별장으로 세란, 현마와 함께 휴양을 위해 떠나는데, 이 별장은 죽석의 남편 만태가 사들인 것이다. 만태는 장사일로 만주를 여행하다가 관북의 주을 산골에 들러 망명한 러시아인들의 부락인 노비나촌 근처의 별장을 사게 된다. 만태가 사들인 별장은 본래 영국인의 소유였다. 영훈은 주을온천의 위치에 대하여 “서울서두 기차를 타구 동해안을 끼구 북쪽으로 하루를 더 온 곳”이라고 설명한다. 주을온천은 망명한 러시아인들이 모여사는 마을인 노비나촌에 있었고, 이국적인 선경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주을온천의 휴양지로서의 발전을 촉진한 것은 총독부 철도국으로, 1921년 11월 21일부터 청진원산선이 주을 온천장까지 연장 운행하게 되었으며 1925년 12월 25일부터는 주을 온천 자동차상회 자동차와 여객의 연락 수송을 개시하였다.<sup>34)</sup> 주을 온천의 설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만철에서는 5만원의 저리자금을 대부해주기도 했다.<sup>35)</sup> 이렇게 접근성이 높아지고 설비가 정비된 주을 온천에는 일본인 관광객 및 만주를 통해서 들어온 영국, 미국 관광객들도 방문했다.<sup>36)</sup> 이효석의 『화분』에도 북적거리는 관광지로서의 주을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영훈은 주을의 풍경에 대해서, “사람들은 피서를 하느라구 이 고명한 피서지를 자꾸 찾아와서는 산속을 변화하게 하구 온천 거리를 흥청흥청하게 해놓”는다고 말한다.(3권: 414쪽) 즉, 영훈은 변화한 피서지로서의 관북의 모습에는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34) 국사편찬위원회, 2008, 『한국문화사 22-여행과 관광으로 본 근대』, 동아출판, 158쪽.

35) 1922.11.27., 「주을온천의 신설비」, 『매일신보』.

36) “여러분은 최근에 철도국과 시인 墨客의 입으로부터 盛히 선전되는 朱乙 온천을 기억하시겠습니까. 朱乙 온천이란 아무까리 성분이 만허서 멀니 東萊 온천이나 濶陽 온천을 능가하며 요모조모 헤치고 드러가는 入路山水의 絶美로서 日本사람들은 日本의 別府 온천보다 낫다고 경탄하며 또 滿洲 등지에서 오는 英米國人들도 大運의 湯岡子 온천보다도 泉質이 조타고 격칭하는 유명한 온천 이외다.”(1932.9. 「露西亞 亡命客村불세끼 정부에 반기들고咸北朱乙의 六十名 集團村落光景」, 『삼천리』 제4권 제9호)

미란 역시 산에서의 피서는 좋지만 북적거리는 해수욕장의 풍경은 참을 수 없다고 느낀다.(3권: 411쪽) 이는 앞의 수필에서 이효석이 북적거리는 해수욕장에서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심경과 닮아있다.

다음 인용문에서 미란이 머물게 되는 별장은 ‘온천 거리의 번잡함’ 속에 휩쓸리지 않는 독립된 곳으로서 형상화된다. 이효석은 주을 온천과 노비나촌,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한 별장을 공들여 묘사한다.

죽석들의 별장은 온천과 ‘노비나촌과의 중간쯤 되는 언덕 허리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노비나촌’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도 없었고 온천 거리의 번잡한 속에 휩쓸릴 것도 없어서 흡사 한적한 곳에 독립된 왕국을 이룬 감이 있었다. 온천까지는 물을 맞거나 양식을 살 때 내려가면 그만이요 사람이 그리우면 ‘노비나촌’에 가서 멋대로 근처를 거닐면 그만이었다. ‘노비나’까지는 두어 마장 온천까지는 삼 마장 가량의 거리 밖에는 안 되었다.

뜰에는 하이얀 모래를 깬 위로 사치한 사시나무가 잎새는 물론 휘추리째 바람에 간들간들 흔들리고 높은 시렁 위로는 머루와 다래넝쿨이 친친 감겨 올라 제물에 정자를 만들고 그 아래에 차 식탁이 놓여 휴게소를 이루었다. 잘고 마딘 잡초를 군데군데 깎아 버리고는 긴 이랑을 만들어 한 이랑에 한 가지씩 색다른 화초를 심었다. 모든 격식이 야지(野地)와는 달라서 미란은 역시 도회의 집보다는 한결 낮고 시원하다고 느끼면서 행복된 여름의 기쁨을 금할 수 없었다.(3권:423쪽)

위의 인용문에서 별장과 주을온천은 도회의 집보다 한결 낮고 야지와도 다른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효석은 주을온천을 야생의 자연처럼 위협적이거나 불편하지 않고 도회처럼 북적이지도 않는, 자연과 문명이 적절히 조화된 곳으로 묘사한다. 수필 「주을의 지협」에서 서술되었던 주을 온천에 대한 이효석의 실제 감상이 『화분』에서 장소를 묘사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효석은 실제의 장소에 대한 묘사와 실제 자신의 감상을 활용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자유와 해방에 대한 지향을 담아 주을온천을 자유롭고 해방적인 공간으로 그려낸다.

미란은 역시 온천에 그와 단 둘이 있을 때가 **자유롭고 행복스러웠다. 피서지에 서는 별장에 돌담과 울이 없는 것같이 모든 것에 테두리가 없고 경계선이 없었다.** 기름길과 언덕 위 나무들과 길바닥의 화초와 골짜기의 시냇물과 양편에 아카시아나무 우거진 산보길은 근처의 모든 사람의 것이지 한 사람의 것은 아니었으며 이웃 별장의 뜰 앞을 기웃거렸다고 책망하는 법도 없고 모르는 집 들창의 안과 밖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미소를 던지고 받는 수도 있는 것이다. 별장 사람들이 온천으로 자유로 내려가고 온천 사람들이 별장터로 마음대로 올 수도 있어서 **그것이 피서지의 풍속인 듯 시스러울 것이 없고 해방적이었다.** 영훈이 별장에 와서 아무리 녹진하게 궁둥이를 붙여도 허물할 사람이 없으며 미란이 온천에 내려가서 마음껏 어질러 놓아도 무방한 것은 이런 풍속에서 은연중에 온 습관이었다.(강조는 인용자, 3권: 426-427쪽)

이효석은 주을 온천과 별장터를 “모든 것에 테두리가 없고 경계선이 없”는 개방적이고 해방적인 공간으로 표상한다. 미란과 영훈은 경계선이 없는 해방된 공간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공통의 취향과 사랑의 감정으로 더 단단히 결속된다. 미란과 영훈이 주을에서 취향과 감정으로 연결되고 있을 때, 푸른집에서는 단주와 옥녀가 애정행각을 벌이는데, 이 때 단주의 옥녀에 대한 소유욕은 ‘영토’의 ‘정복’이자 ‘점령’으로 표현된다.

영훈과 미란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은 각자의 욕망을 탐욕스럽게 추구하다가 파국을 맞이하게 되지만, 미란과 영훈은 ‘창조적인 것의 생산’과 ‘예술의 완성’을 위해 하얼빈을 거쳐 구라파로 갈 계획을 세우게 된다. 영훈은 구라파주의자로서, 구라파를 아름답지 않은 현재를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이자 ‘마지막 구원’으로 여기는 인물이다. 실제의 하얼빈은 만주국의 한 도시로서 식민권력이 침투한 곳이었지만, 이효석은 구라파주의자 영훈을 통해 하얼빈을 “음악의 명인들이 많고 구라파 음악의 전통이 알뜰히 살아” 있는 ‘구라파와 다름없는 도시’(3권: 474쪽)로 이상화한다.

이러한 영훈의 말을 일면적으로 받아들이면, 『화분』의 서사를 현실도피나 무비판적 서양숭배, 나아가 파시즘 체제의 내면화로 해석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

이효석은 전시체제하의 현실에 누구보다 참담함을 느끼고 있었다. 1937년 7월의 중일전쟁을 계기로 일제는 본격적인 전시체제기로 돌입했고, 1937년 8월에 발표한 수필에서 이효석은 이렇게 썼다. “작가로서 창작상으로부터도 먼저 한 사람의 현대인으로서 현대에 대하여서 과연 얼마나 참다운 매혹을 느낄 수 있을까. 터놓고 말하면 커다란 세계적 빈민굴 속에 처하여 있는 셈이 아닌가.”<sup>37)</sup> 이효석은 한 사람의 현대인으로서 현대의 어둡고 참혹한 면을 응시하였지만, 작가로서 창작에 임할 때에는 빈민굴 같은 현대의 대안적인 시공간을 꿈꾸고 서사화하고자 했으며, 이 시기 이효석에게 대안적인 시공간으로 채택된 것이 하얼빈과 구라파라 할 수 있다.

러시아에 의해 건설된 철도계획도시였던 하얼빈은 동양의 파리, 동양의 모스크바로 불리던 국제도시였지만, 1929년의 만주사변, 1935년 일본의 동청철도 접수, 1939년 북변진흥책이 추진되면서는 군사요충지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화분』 이후에 발표한 『벽공무한』(1940.1~7)과 『합이빈』(1940)에서 이효석은 하얼빈에서 직접 변화를 목도하는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애수를 담아냈다.<sup>38)</sup> 그러나 『화분』에서는 하얼빈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영훈의 시선을 통해 하얼빈이 이상화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영훈이 하얼빈의 실상이 다를 것을 예감하면서도, 하얼빈을 ‘꿈꾸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화는 식민지 조선의 근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대안적인 시공간을 상상하는 이효석 특유의 창작 방법론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영훈의 구라파주의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효석은 『화분』과 같은 해에 발표한 『여수』(『동아일보』, 1939.11.29.-12.28.)에서, 구라파를 ‘현대문명의 발상지’이자 ‘현대인의 고향’이라고 말하며, 구라파주의를 ‘이국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보다도 한층 높이 자유에 대한 갈망의 발로’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화분』에서도 미란과 영훈의 서사를 통해 주을은 식민지 조선

37) 이효석, 1937.8.18, 「마치 빈민굴에 사는 심정」, 『조선일보』.

38) 천춘화, 2024, 「‘하얼빈(哈爾濱)의 애수(哀愁)와 식민지의 지정학-식민지말기의 ‘하얼빈 기행 서사’ 연구」, 『한국문학논총』 96, 475쪽.

의 고립된 산골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으로서, 하얼빈, 구라파와 연결된다. 이효석은 영훈의 입을 통해, 구라파주의를 ‘세계주의’의 동의어로 사용하면서 ‘지방주의’를 비판한다.

그의 구라파주의는 곧 세계주의로 통하는 것이어서 그 입장에서 볼 때 지방주의 같이 깨지 않은 감상은 없다는 것이다. 진리나 가난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은 공통되는 것이어서 부분이 없고 구역이 없다. 이곳의 가난한 사람과 저곳의 가난한 사람과의 사이는 이곳의 가난한 사람과 가난하지 않은 사람과의 사이보다는 도리어 가깝듯이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 것끼리 구역을 넘어서 친밀한 감동을 주고받는다. 이곳의 추한 것과 저곳의 아름다운 것을 대할 때 추한 것보다는 아름다운 것에서 같은 혈연과 풍속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같은 진리를 생각하고 같은 사상을 호호하고 같은 아름다운 것에 감동하는 오늘의 우리는 한 구석에 숨어 사는 것이 아니요 전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3권:382쪽)

영훈은 부분이 없고 구역이 없이 ‘공통되는 것’으로 연결되는 세계를 꿈꾼다. 영훈의 구라파주의는 『화분』이 창작되던 당시의 제국주의적 담론과 대치된다. 1938년 11월 고노에 내각이 동아신질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동아협동체론과 동아연맹론이 대두했고, 조선문화와 조선문학의 위치를 둘러싸고 지방주의, 동양주의, 국민문학 등의 개념과 이론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효석은 중앙과 지방의 구분, 서양과 동양의 구분이 없이 ‘가난과 진리와 아름다운 것’으로 연결되는 세계에 대한 지향을 영훈과 미란의 여정을 통해 보여주었다. 이효석은 조선과 만주를 병참기지화하여 서양과 맞서려는 제국주의 담론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구라파주의자의 시선을 통해 조선-하얼빈-구라파로 구획 없이 이어지는 낭만적 지도를 제시했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이효석의 문명비평적 태도와 관북이라는 지역이 조우하였을 때, 관북이 어떻게 표상되는지 살펴보았다. 이효석은 '타락한 근대 문명/억압된 인간'이라는 인식론적 구도와 '산문적 현실과 시적 낭만의 혼합'이라는 창작방법론에 입각하여 창작활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문명비평적 시각과 창작방법론은 식민지/제국, 지방/중앙의 정치적 위계질서로 환원되지 않는 이효석만의 고유한 심상지리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었다.

식민지 시기 관북은 일본과 만주를 효율적으로 이어주는 북선루트로 주목받은 지역이자, '북선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정치적·경제적·군사적 목적의 수탈이 이루어진 지역이었다. 이효석은 식민권력에 의한 관북의 근대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 문명비평적 시각에 의거하여 심상지리를 만들어나간다. 이효석은 관북을 여행하면서 관북의 국경도시로서의 지리적 위치와 자연 환경을 눈여겨보았고, 개방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관북과 러시아를 연결한다. 1932년 이후 관북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효석은 수탈과 가난으로 고통 받는 농촌으로서의 관북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고, 지금 여기를 벗어나 저기 어딘가로 향하고자 하는 관북 사람들의 강렬한 소망을 담아낸다. 1936년 이후 이효석은 평양으로 이주했고, 피서지로서의 관북에 대한 경험과 감상에 기초하여 주을 온천을 자연과 문명이 조화를 이룬 자유와 해방의 공간으로 표상하고 하얼빈-구라파로 이어지는 미란과 영훈의 여정 속에 배치했다. 이처럼 이효석은 문명비평적 관점에 입각하여 실제의 관북을 변주하여 대안적 공간과 비약적으로 연결했다.

북선개발담론 속에서 관북은 일본과 만주를 잇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통로였지만, 이효석의 인식론적 지도상에서 관북은 러시아, 아일랜드, 하얼빈, 구라파와 연결가능한 공간이다. 이효석은 관북을 '식민지의 지방'으로 수렴시키지 않고 세계와 연결했고, 관북사람들의 고통과 소망을 특수한 것으로 수렴시키지 않고 '인류 공통'의 것으로 확장했다. 이효석은 실제 관북의 지리와 특성을 면밀히 관찰하되, 관북의 지방색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대안적 공간과 낭만적으로 연결했다.

이러한 창작방법론을 통해 이효석의 소설은 현실과 이상, 사실과 낭만 사이를 오가는 폭넓은 진폭을 지니게 된다. 본고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효석이 현실도피적인 자연의 세계로 귀의하기 위해 관북을 공간적 배경으로 일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문명비평적 시각과 반복적인 낭만적 요소의 도입을 통해 북선 개발 담론에 귀속되지 않는 관북의 심상지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갔음을 증명하고자 했다.

1940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쓴 「문학 진폭 옹호의 변」(『조광』, 1940.1)이라는 수필에서 이효석은 “여행은 즐겁고 슬픈 것이다”라고 썼다. 여행 중에 이효석은 문명의 혜택을 찾아볼 수 없는 가난한 벌판과 거리를 목도한다. 그리고 그곳을 살아가는 “가난하고 추잡한 인간”들의 얼굴들을 마주한다. 그러나 이효석의 문장은 환멸의 현실에 대한 비분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내 문학의 임무와 소설가의 일에 대한 이효석의 문장들이 이어진다. 이효석은 문학에 대해 “환멸에서 인간을 구해내는 높은 방법”이라고 썼다. 이효석은 문학을 구원의 방법으로 삼아, 환멸의 영토 위에 낭만의 지도를 엇갈리게 겹쳐놓았다.

## [부록] 관북지역과 관련된 이효석 작품 목록

## 1) 수필

제목	수록지면	발표시기
三日間	삼천리	1933.4
北緯四十二度	매일신보	1933.6.3
斷想의 가을	동아일보	1933.9.20
二等邊三角形의境遇	월간매신	1934.9
여름三題	중앙	1935.8
六月에야 봄이 오는 北鏡城의 春情	조광	1936.4
北國春信	동아일보	1936.3.19~21
C港의 일척	조광	1936.8
고요한 동의 밤	조광	1936.12
避暑地 關北通信(전 4회) 第1信인물보다 자연이 나를 더 반겨주오	동아일보	1937.7.30
第2信 계절을 다시 역행하는 듯하오	동아일보	1937.8.4
第3信 해초향기 품은 청춘의 태풍	동아일보	1937.8.7
第4信관북의 평야는 황소 가슴갈소	동아일보	1937.8.8
朱乙의 地峽	조광	1937.8
산협의 시	조선일보	1940.7.30
화초	인문평론	1940.8 (“회령자기會寧磁器” 언급)
朱乙 가는 길에	삼천리	1940.12
朱乙素描	文化朝鮮	1940.12
樹木について(수목에 대하여)	조선화보	1943.4

## 2) 소설

제목	수록지면	발표시기	비고
北國點景	삼천리	1929.12	경성, 회령, 청진
마작철학	조선일보	1930.8.9.-20	관북 정어리 어업
朱利耶	신여성	1933.3~1934.3	주리야의 고향-관북 성진
十月에 피는 綾衾꽃	삼천리	1933.1	공트, 경성에서의 생활
弱齡記	조선일보	1933.8.3~8.19	경성농업학교 교사 생활

豚	조선문학	1933.10	경성농업학교 교사 생활
日記	삼천리	1934.11	경성-나남 열차 사고
聖書	조선일보	1935.10.11~31	주을온천
수탉	삼천리	1935.11	경성농업학교 교사 생활
花粉	인문사	1939.9	주을온천

## 참고문헌

- 고태우, 2020, 「식민지기 ‘북선개발(北鮮開發)’ 인식과 정책의 추이」, 『한국문화』 89
- 국사편찬위원회, 2008, 『한국문화사 22-여행과 관광으로 본 근대』, 동아출판
- 김병철, 1975, 『한국근대변역문화사 연구』, 을유문화사
- 김성연, 2008, 「꿈의 도시’ 경성, 그 이면의 ‘폐허’-이효석 「도시와 유령」을 시점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7
- 김양선, 2005,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무의식의 양상: 향토와 조선적인 것의 발견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7
- 김현정·김문주, 2016, 「일제강점기 만주행 作家들의 내면과 心象地理-백석과 이효석의 러시아에 대한 동경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8
- 방민호, 2007, 「이효석과 하얼빈」, 『현대소설연구』 35
- \_\_\_\_\_, 2007, 「자연과 자연 쪽에서 조망한 사회와 역사-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공간의 새로운 음미」, 염무웅 편, 『분화와 심화, 어둠 속의 풍경들』, 민음사
- 백지혜, 2002,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여행’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규진, 2013, 「일제의 대륙침략기 ‘북선루트’·‘북선3항」, 『한국사연구』 163
- 신정은, 2024, 「문학지리학적으로 보는 이효석의 도시소설연구-‘벽공무한’, “하얼빈”, “은은한 빛”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6-2
- 심재욱·이혜은·민원기, 2017, 「일제강점기 淸津의 팽창과 정어리 어업」, 『역사와 실학』 63
- 안유립, 1994, 「1930년대 총독 宇垣一成의 식민정책- 북선수탈정책을 중심으로」, 『梨大史苑』 27
- 이경돈, 2019, 「北鮮의 기억-식민에서 분단까지, 공간감각의 표상들」, 『대동문화연구』 106
- 이경훈, 2001, 「하르빈의 푸른 하늘: 「벽공무한」과 대동아공영」, 김철·신형기 외,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 이미립, 2015, 「이효석의 영서 삼부작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47
- \_\_\_\_\_, 2016, 「이효석의 북국 삼부작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0
- 이민부, 2017, 「이효석 문학에서의 지리 인식」, 『문화 역사 지리』 29-4
- 이세주, 2006, 「식민지근대와 이효석 문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양숙, 2008, 「이효석 문학에 나타난 ‘자연’과 ‘고향’의 의미」, 『민족문화사연구』 37
- 이현주, 2009, 「이효석 문학의 배경에 대한 주석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4, 「1920년대 후반 식민지 문학에 나타난 ‘북국(北國)’ 표상 연구」, 『우리文學研究』 44
- \_\_\_\_\_, 2020, 「고향의 발견, 호명된 영서-「봄·봄」, 「동백꽃」과 「모밀꽃 필 무렵」을 중심

- 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72
- 이효석문학재단 편, 2016, 『이효석 전집』(전6권)
- 전봉관, 2022, 「이효석의 「마작철학」과 문화 현상으로서 ‘정어리’ 열풍」, 『한국현대문학 연구』 66
- 정실비, 2012, 「일제 말기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고향 표상의 변천」, 『한국근대문학연구』 25
- 정여울, 2012, 「이효석 텍스트의 공간적 표상과 미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천춘화, 2024, 「‘하얼빈(哈爾濱)의 애수(哀愁)’와 식민지의 지정학-식민지말기의 ‘하얼빈 기행 서사’ 연구」, 『한국문학논총』 96

투고일: 2024년 09월 22일 심사완료일: 2024년 10월 11일 게재확정일: 2024년 10월 18일

■ Abstract ■

Reimagining Gwanbuk  
: Imaginative Geography and Colonial Tensions in Yi Hyo-seok's  
Literature

Jung, Sil-vi (The University of Tokyo)

This study examines how Yi Hyo-seok's literature constructed and now serves as a representation of Gwanbuk, employing a civilizational critique that analyzes shifts in its imaginative geography across distinct periods. While previous research has often framed Yi's post-1932 works through escapism and sensuality, with Gwanbuk seen as a pivotal turning point of his career, this study argues that his portrayal of the region extends beyond these themes. Instead, Yi's works presents Gwanbuk as a romanticized, liminal space that stands in contrast the colonial expansion of North Joseon.

By examining his creative blending of prosaic reality with poetic romanticism within an epistemological framework grounded in a tension between the effects of a decadent modernity and human repression, the study demonstrates how Yi transforms Gwanbuk, a transit route between Japan and Manchuria, into a fluid, syncretic space. His work repositions Gwanbuk within a global network that includes references to Russia, Ireland, Harbin, and Europe. Through this reconfiguration, local experiences are expanded into universal human concerns that directly challenge the colonial power structures that privilege the center over the periphery. The study reveals how Yi's literature synthesizes reality and imagining, leading to Gwanbuk emerging as an alternative space beyond the constraints of empire.

Key words: Gwanbuk, Imaginative geography, North Joseon, Manchuria, Harbin, Civilizational critique